

2020년 2월 12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동물복지정책팀 팀 장 안유영(044-201-2371), 사무관 이승환(2372) / 제공일 : 2월 11일(총 2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2월 17일부터 서울·경기 전지역 고양이 동물등록 가능 -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지역 확대 -

《 주 요 내 용 》

- ◇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서울·경기 전지역으로 확대
 - * (현행) 33개 기초 지자체 → (확대) 서울, 경기, 기존 참여 지자체
- ◇ 가까운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등록 가능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고양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추진 중인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2월 17일부터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시범지역 확대는 지난 1월 15일 발표한 「‘20~’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, 2월 17일부터 서울·경기 전지역, 기존 시범사업 운영 지역에서 고양이 동물등록이 가능해진다.

<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>

시·도	지자체명	시·도	지자체명
서울	전지역	강원	원주·속초
경기	전지역	충남	천안·공주·보령·아산·예산·태안
인천	동구	전북	남원·정읍·김제
광주	북구, 남구	전남	나주·구례
세종	세종	경남	하동·사천
제주	제주·서귀포	경북	문경·포항·경주

□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 참여가 가능하며,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.

○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고양이와 동반하여 지역내 동물등록대행기관*을 방문, 수수료(1만원)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.

* 동물병원 등 지자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'18년 12월 기준 서울 837개소(동물병원 772개소), 경기 962개소(동물병원 928개소)

- 동물등록대행기관 위치는 거주하는 지자체에 문의하거나, 동물보호 관리시스템*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.

* 동물보호관리시스템(www.animal.go.kr) : 동물등록정보 확인, 보호 중인 유실·유기 동물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(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)

□ 농식품부 관계자는 “최근 유실·유기 고양이가 증가하는 등 고양이 동물등록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.”고 하면서,

○ “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통해 고양이 동물등록 필요성에 대한 소유자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, 고양이 동물등록 방식, 등록 기준 월령 등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”라고 밝혔다.